전남 학생들, 독일서 손기정 선수 숭고한 정신 기리다

파리올림픽 앞두고 베를린서 손 선수 '슬픈 우승' 순간 재현 달리기행사
독일·영국서 국외 캠프…독서·토론·역사문화 체험 인문학적 역량 함양

2024 전남독서인문학교 캠프단이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재현하는 행사에 앞서 독일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긴 전남 지역 학생들이 독일에 떴다.

독서와 토론, 역사문화체험으로 인문학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9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영국 일원에서 국외캠프를 하고 있는 '2024 전남독서인문학교(고교) 캠프단'이 파리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2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에서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순간을 재현하는 달리기 행사를 열었다.

캠프 6일 차 행사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파리올림픽에 맞춰 세계 역사 속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 길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의미를 뒀다.

특히 손기정·남승룡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했던 이유와 당시 나라 잃은 국민의 비참함을 이해하고자 했다.

손기정 선수의 역사적인 경기는 8월 9일 베를린 현지 시각 오후 3시 2분에 시작됐다. 출전 선수는 56명. 손기정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의 자바라 제치고 2시간 29분 12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했다. 이어 순천 출신 남승룡 선수가 3위로 들어와 동메달을 차지했다.

캠프단은 독일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을 찾아 일제 강점기 핍박을 이겨내고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슬픈 우승'의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당시 마라톤 코스였던 그루네발트(Grunewald) 구간 2.5km를 달려 결승점을 통과한 뒤 월계관을 쓰고 우승 메달을 받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현지 주민들도 학생들의 행사를 신기한 듯 지켜보며 격려를 보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김맑음(진도고) 군은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우승을 차지한 뒤 한국임을 잊지 않았던 손기정 선수가 가졌던 숭고한 뜻을 생각하며 뛰었다"며 "조금 힘들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정희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나라 잃은 슬픔을 간직한 두 영웅이 뛰었던 마라톤 코스 중 일부를 따라 뛰거나 걸으며 두 선수의 슬픈 마음과 그런 역경을 헤쳐 나가고자 했던 숭수한 열정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역사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깨닫고 세계 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캠프단은 앞서 1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주독일한국교육원에 한글 동화책 100권을 기증하고 독일에 거주하는 파독광부·간호사와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 20일에는 나치 중앙본부 자리에 세워진 '토포그래피 박물관'(공포의 지형학)과 독일 나치 정권 아래 탄압을 받았던 유대민족을 기리기 위한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찾아 전쟁 속에 짓밟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베를린 글·사진=김대성 기자 bigkim@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 관계자들이 최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대 제공〉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추진 속도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구성 회의
학생보호 방안 등 기본계획 심의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간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22일 목포대학에 따르면 올해 1월 목포대 스마트회의실에서 목포대와 도립대 간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구성과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 대학은 최근 스마트회의실에서 통합추진 공동위원회(이하 '통추위')를 열었다.통추위는 양 대학 총장 및 교수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등 대학별 12명씩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통합대학의 형태와 행정조직,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교직원 및 학생보호 방안 등이다. 이 안건은 재적 위원 24명 중 23명 참석, 참석인원 전원 동의로 가결됐다.

심의안 마련을 위해 양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통합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양 대학으로 오가며 회의 및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양 대학의 강점을 결합해 통합된다면 전남을 대표하는 가장 큰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립대 조명래 총장은 "전남 발전을 위해 목포대가 반드시 2024년 글로컬대학 본 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립대의 역량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가결된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도와 기초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합과정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 1월 11일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학생들, 유럽서 과학 인재 꿈 키운다

'세계로 미래로 과학 리더십 캠프'
학생 19명, 과학 명문대 등 방문

'세계로 미래로 과학 리더십 캠프' 참가 학생들이 19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으로 출발했다.

광주 학생들이 과학 인재 꿈을 키우기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학생들이 지난 19일 유럽 과학 명문대학교와 연구소를 둘러보는 '세계로 미래로 과학 리더십 캠프'를 시작했다.

'세계로 미래로 과학 리더십 캠프'는 시교육청에서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19~29일까지 진행된다. 캠프에는 이공계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명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이공계 분야 실적,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1차 서류 심사, 참여 동기와 진로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2차 면접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발했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있는 취리히 대학, 로잔 대학, 유럽 중력파 관측소,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등 유수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특강, 교육 프로그램,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과학적 소양을 키우게 된다.

시교육청은 안전한 캠프 진행을 위해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안전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 캠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3일~7월 17일 5차례의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사전교육에 참가한 배은빈 학생은 "캠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고 싶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상반기 코레일 공채 등 대거 합격

철도대학 학생 22명 SR·GTX 등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철도대학 학생 22명이 2024년 상반기에 코레일 등 공채에 합격했다.

22일 송원대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합격자는 코레일 3명, SR(수서고속철도) 1명, GTX 5명, 서울메트로 1명, 김포경전철 3명, 남서울경전철 1명, 다원시스(철도차량 제작)2명, ㈜지이테크놀로지(철도신호)1명, 코레일네트웍 1명, 해운대및관광사 3명, 우진PRT 1명 등 총 22명이다.

코레일에 합격한 문기현씨는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배들의 멘토링에 힘입어 무사히 졸업과 함께 철도분야 최고의 공기업인 코레일에 입사하게 됐다"며 "한국철도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송원대는 철도 인재 배출의 산실로 입지를 굳혔다.

지난해에는 코레일 15명, 서울교통공사 등 공채시험에 28명이 대거 합격하기도 했다.

송원대는 1996년 사립대학 최초 철도경영학과를 설립하여 28년의 전통을 잇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공모·선정하는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8th Korea Brand Hall of Fame) 대학(철도특성화) 부문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